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| 보도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11. 17.(화) 12:00 (2026. 11. 18.(수) 조간)

일터의 안전부터 관광레저와 자원의 가치까지, 공공의 책임을 위한 감사 협력

-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-강원랜드-한국광해광업공단, 자체감사 업무협약 체결
- 산업안전·재난예방 및 인공지능(AI)·빅데이터 기반 감사기법 공유로 감사역량 강화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(KOSHA, 상임감사 정혜선, 이하 “공단”)은 17일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소재 강원랜드에서 강원랜드(상임감사위원 장경열), 한국광해광업공단(상임감사위원 김준섭)과 ‘공공기관 감사기구 간 안전관리 감사역량 강화 및 디지털 감사 혁신을 위한 자체감사 업무교류 협약’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
『공공기관 감사기구 간 안전관리 감사역량 강화 및 디지털 감사 혁신을 위한 자체감사 업무교류 협약』

- 일시 : 2026. 11. 17.(화) 12:00~
- 장소 : 강원랜드 그랜드호텔 6층 스페이드
- 체결 : (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) 정혜선 상임감사 등
  (강원랜드) 장경열 상임감사위원 등
  (한국광해광업공단) 김준섭 상임감사위원 등

이번 협약은 산업안전보건, 관광·레저, 광해광업 등 각 기관의 업무 특성을 바탕으로 자체감사기구 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고, 안전관리 분야의 위험 예방과 디지털 감사 혁신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.

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산업안전·재난예방 등 주요 위험분야에 대한 합동 점검을 추진하고, 안전관리 감사기법과 위험요인 개선 사례를 공유한다. 아울러 AI·빅데이터 기반 감사기법을 공유해 디지털 감사체계를 고도화하고, 감사 전문인력 교류, 내부통제 및 감사 우수사례 공유, 청렴·윤리경영 등 감사업무 전반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.

공단은 이번 협약으로 산업안전 분야의 감사 전문성을 다른 기관과 공유하는 한편 관광·레저와 광해광업 분야의 감사 경험과 기법을 감사업무에 접목함으로써 자체감사기구의 역량과 내부감사 품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정혜선 안전보건공단 상임감사는 “업종과 현장은 달라도 안전은 모든 기관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”라며, “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의 감사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고,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감사 혁신에도 함께 힘쓰겠다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감사실 성과감사부	책임자	부 장	양수빈 (052-703-0791)
		담당자	차 장	이연호 (052-703-0792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대체불가 대한민국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